

익숙함을 낯설음으로 평범함을 이국적으로 이방인이 담은 한국의 집 – 잉고 바움가르텐

Localler

새롭게 떠오르는 문화를 발견해 융합해 나가는 '문화의 선구자 Culture Vanguard' 역시 기아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철학의 문화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기아디자인매거진은 Localler 라는 메뉴를 통해 '문화의 선구자 Culture Vanguard' 라는 타이틀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현지 외국인, 외국에서 살고 있는 현지 한국인들의 경계 없는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풍경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것에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한 채 스쳐 지나친다. 하지만 익숙한 듯한 풍경 속에서도 섬세한 관찰을 통해 익숙한 것을 낯설게, 평범한 것을 아름답게 화폭에 풀어내는 이가 있다. 바로 독일 화가 잉고 바움가르텐(이하 잉고). 일상에서 건축의 구조, 소재 등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상상을 스토리텔링 하여 잉고만의 시선을 만들어 낸다. 잉고의 그림을 마주하면 마치 '이상한 나라 앨리스'로 빨려가듯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풍경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16년째 한국에 살면서 서울을 관찰하며, 한국의 주택과 건물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그리며 한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잉고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untitled (juteak gable, door, Seogyodong, Seoul), 80 x 100, 2011

“마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잉고 바움가르텐

독일의 서부 하노버 교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 학생은 풍부한 문화가 있는 대도시를 동경했고, 미술학도이자 젊은 예술가가 되고자 파리로 떠났다. 독일에서 학업을 마친 후 '파리 시각예술고등예술원 Institute of Higher Studies in Visual Arts Paris'에 합격하여 초대받은 것. 그곳에서만 머물지 않고, 대만, 일본, 한국으로 유랑해왔다. 다문화적 관점을 견지한 잉고는 2008년 홍익대학교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197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지어진 콘크리트 주택에 매료되어 한국의 집과 건물을 화폭에 담고 있다.

잉고 바움가르텐이 한국의 주택에 매료된 데에는 유럽에서 나고 자란 환경이 한몫했다. 대부분의 유럽은 일률적으로 집을 짓는다. 지붕의 규격, 방의 구조 등 하나하나 정해진 법규가 있고, 집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20년 정도가 흘러야 한다. 반면, 한국의 주택은 전통과 현대의 대비가 뚜렷하면서도 주택의 구조나 형식이 저마다 다르다. 이 대비 속에서 한국인들의 개성이 묻어 있는 저마다의 스토리가 잉고의 시선을 끌었다. 그런 잉고는 한국인이란 무심코 지나쳤을 지붕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 “마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이방인 시선에서 한국 주택은 영감의 원천이었고, 한국 주택이나 건물의 한 단면을 극대화하여, 자신만의 상상을 더해갔다. 《기아 디자인 매거진》은 한국적이면서도 한국적이지 않은 잉고 바움가르텐만의 세계가 궁금했다. 한국에서 어떤 매력을 느끼는지, 그 매력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등 한국을 바라보는 잉고의 관점이.



untitled (sulphur yellow balcony, Seogyodong, Seoul), 2013

#한국

블레이드 러너, 한국 영감의 원천

1993년. 대전엑스포를 관람하며 한국과 첫 인연을 맺은 잉고 바움가르텐. 잉고는 경제와 문화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파리 시각예술고등예술원'에서 '1993 대전엑스포'의 미술품 전시를 기획하던 중 한국의 예술과 문화 탐방을 하는 '스쿨 트립(School Trip)' 프로그램이 함께 기획되었다. 잉고는 그 프로그램에 선발되면서 처음 한국을 방문하면서 '역동적인 한국'을 마주했다.

"1993년 여행 중 오래된 전통과 거대한 현대화의 큰 대비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쪽에는 인왕산에는 무당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현대식 고층 아파트 건물로 지평선을 이루고 있었죠. 또 동대문 시장에는 다양한 상품과 제품, 서비스가 한곳에 모여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컸던 시장의 규모는 압도적이었고, 벽면 가득 채워진 컬러 TV, 개고기와 새고기까지... 온갖 종류의 직물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기억도 있어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세트장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2008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잉고는 전통과 현대의 대조적인 한국의 인상을 찾아 골목을 거닐었다. 그 순간 한국 주택의 모습이 잉고의 눈에 들어왔다.



#영감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시도한 집합체

Q1.

한국에 정착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계기는 아니었어요. 2008 년에 홍익대학교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머무르게 된 것도 자연스럽게 흘러왔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것도 좋고, 저의 작업에 한국은 여전히 영감을 주기 때문이죠.

Q2.

작업은 한국 주택을 오브제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국 주택에 매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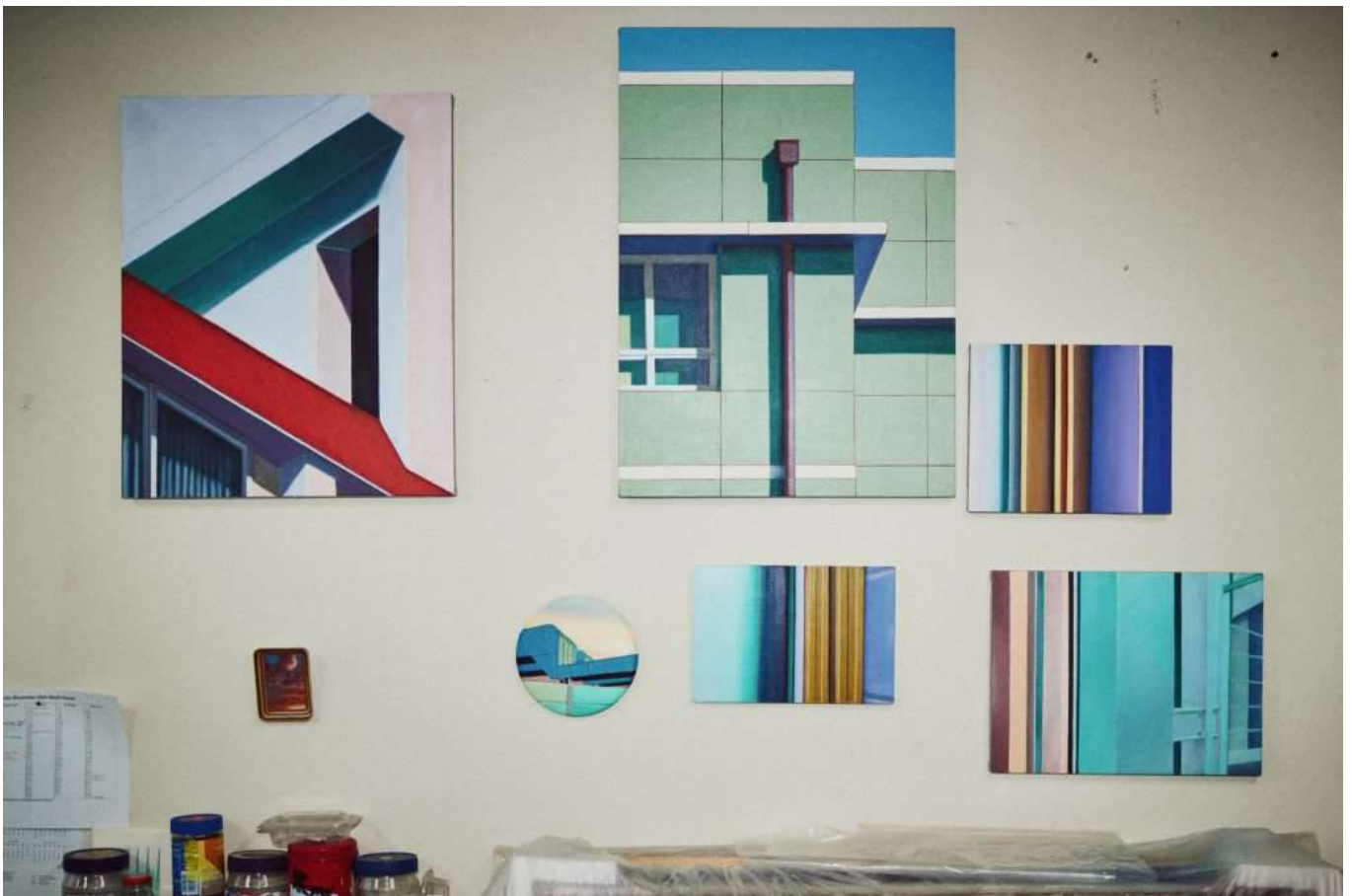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1993 년 처음 서울을 방문했을 때 서울의 도시 풍경은 콘크리트로 만든 하얀 수평 구조의 붉은 벽돌로 지은 집들이 언덕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저에겐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독일이나 유럽과는 다른 풍경이기 때문이죠. 그런 주택들은 동대문이나 이태원 일부 지역에 남아 있는데, 도시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최소한 리모델링으로 곧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Q3.

한국의 주택의 어떤 부분이 다르게 다가왔는지요?

한국에 정착하면서 도시와 주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살던 지역(서교동, 연남동, 연희동)을 예로 들면 집이나 건물들이 서양과 동양의 아이디어가 융합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주택의 창시자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Frank Lloyd Wright 의 프레리 스타일* 기법과 닮아 있었죠. 한국의 주택은 현대적인 서양 재료와 건축 기술을 사용한 동시에 대문간이 있는 정원, 확장된 베란다 공간 등 한국의 전통 방식을 적용해 그것이 융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식적 요소가 콘크리트로 구현되었지만, 전통적인 목조 건축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프레리 스타일 경사가 완만한 지붕과 지붕 바로 밑으로 슬레브 구조가 밖으로 나오게 한 2 층의 베란다식의 건축법





#관찰

시각인류학 관점에서 접근

Q4.

한국 주택의 지붕, 난간이나 옥상의 테라스 등 일상적 공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이 동양과 서양의 융합으로 해석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건축물은 사회의 문화와 정서가 집약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성과 색채, 비례 등을 재구성해 평범한 공간에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각인류학'이라는 관점에서 작업에 접근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2002 년경 독일 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용어인데요.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참여적인 관찰을 통해 일상과 문화, 사회를 탐구하고 그 결과를 이미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Q5.

시각인류학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집을 '영원'의 개념으로 보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인 양상이 나타납니다. 즉, 집이라는 공간에서 사회, 문화를 탐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예로 들면 두 개의 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건물은 1970 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왼쪽 건물은 비교적 현대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 두 다른 건물을 아케이트로 연결했다는 점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독특한 구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인지, 이 구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이처럼 관찰을 통해 탐구하고 저만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어, 저만의 해석이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시각인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titled (connected houses, Sangsu, Seoul), 100 x 120 cm, 2022

Q6.

선생님의 작업은 관찰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관찰을 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동네 산책을 하며 주택과 건물을 둘러보는데 제 눈길이 닿는 곳의 건물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거나 즉석에서 스케치를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스케치에서 이미 저의 심미안을 자극하는 포인트를 부각시키죠. 비대칭의 구조나 다양한 건축자재, 색감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작업을 하기 전 실제적 동기가 준 인상이 출발점입니다. 스케치를 바탕으로 이 건축 스타일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하고, 심미적 표피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과정을 거치죠. 두 번째로는 미적 자율성이 구현되는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스케치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림에서 특정 미적 효과를 얻기 위해 구도와 이미지 디자인의 형식적 아이디어에 따라 비율과 색상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하면서 작업을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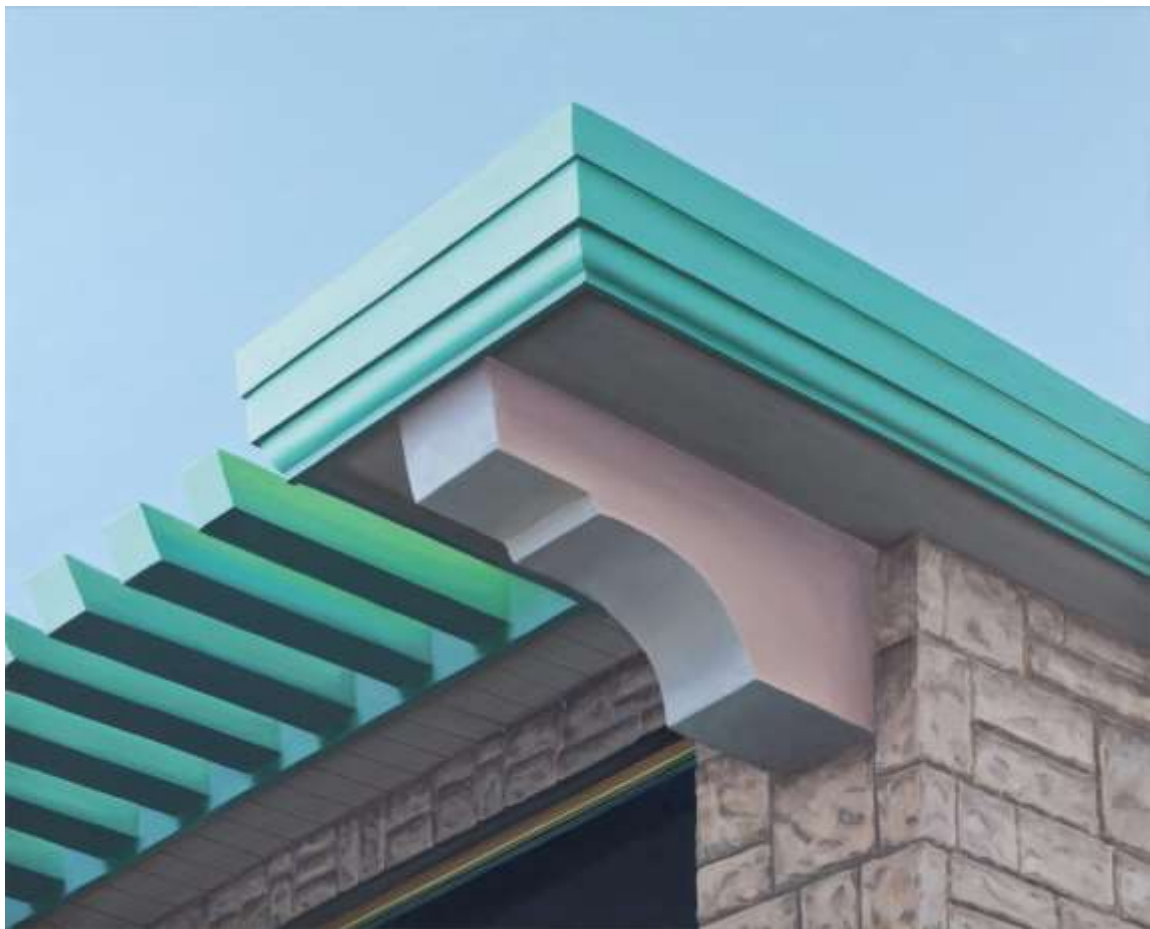
Q7.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 따뜻한 색감이 유독 눈에 띄니다.

색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색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색상인 청록색이나 민트, 그린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상인데요. 이 색은 현대 건축

디자인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기반으로 하지만 창작 과정에서 조정되고 수정되어 독자적인 미적 감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익숙하지만 낯설어 보이는 점을 색상을 통해 찾았을 때 관객들의 몰입도는 극대화됩니다.



untitled (green roof- edge, Jutaeok decoration, Hapjeong, Seoul), 80 x 100cm, 2012



#관점

제 3 자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Q8.

선생님은 한국 주택에 어떤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세요.
그것에서 어떠한 미학을 느끼시나요?

제가 본 주택이나 빌딩을 재구성하여 화폭에 옮기는 과정에서 유희적이고, 창조적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집의 변화를 포착하게 됩니다. 이 지점이 저에게는 한국의 주택과 빌딩의 미학으로 다가옵니다. 가령 발코니나 테라스 외부 공간을 실내 공간으로 들여놓는 방식이나, 주택의 소유자에 따라 여러 가구가 쪼개지거나 앞서 설명했듯 서로 다른 집이 연결되는 것들. 그러한 변화의 발견이 주는 미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Q9.

선생님이 살았던 유럽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는 당연할 것 같습니다.
건축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독일도 전쟁으로 여러 집이 무너지면서 빌딩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차이점이라면 독일에서 지은 빌딩은 한 번 지으면 평생 있어야 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저희 가족이 살았던 집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항해를 나가기 2 년 전에 지어진 집이었고, 제가 살았던 베를린의 집도 1906 년도에 지어졌죠. 이러한 점 때문에 여러 규제가 생겨나고 건물을 허물거나 고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주택이나 건물들의 역사적인 가치가 보존되는 반면 변화가 많지 않지요. 역동적인 변화가 많은 한국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지점이에요.



untitled (apartment rooftops, Seoul), 100 x 140 cm, 2011

Q10.

한국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계시나요?

한국도 독일 환경과 비슷합니다. 전쟁 등으로 건물들이 많이 파괴되었고, 건물을 다시 세우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화폭에 담긴 주택들은 경제 부흥기 때 지어진 건물들인데요. 이 건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새로운 집과 빌딩들로 변화했어요. 이러한 역동성은 혁신과 발전을 가져오는 동시에 '새로운 것'에 공간을 제공하지만 오래된 미학이 파괴되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거대한 변화가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의 뿌리가 훼손되는 부정적 측면이지요. 전통적인 부분, 혹은 역사의 흔적이 사라진다고 해야 할까요?

Q11.

변화라는 것에 양면성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변화가 어려운 유럽의 집과 한국의 집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데다, 집값도 비싸기 때문에 주택으로 지어지기보다는 아파트로 편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구조가 편리하잖아요. 반대로 변화가 없는 유럽의 예를 들어 볼게요. 프랑스도 건물을 철거하려면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파리에 거주하는 제 친구의 아파트는 문을 열면 안방이고, 그 안방을 통해 화장실과 주방으로 가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내부만 고치면서 일어난 폐해인 거죠.

Q12.

우리의 뿌리를 훼손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이상적인 건축물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상적인 건축물을 꼽는다면 세종문화회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근대화와 전통성을 절묘하게 조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돼서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보존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작은 바람이라면 한국의 재개발 등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보다는 유에서 유를 다시 창조하는 방식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적인 측면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untitled (Reados Chigwa Seoul, Yeonnamdong, Seoul), 180 x 120 cm, 2017



#소통

시각적인 언어의 대화

Q13.

선생님은 한국의 양면성, 한국인이 캐치하지 못한 점들을 화폭에 담고 계시는데, 관객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점을 느꼈으면 하시나요?

한국인이 제 그림을 볼 때 추억이나 경험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주로 1970~1990년대 주택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담지 않기 때문에 제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들이 먼저 색과 비율, 조화와 긴장감을 즐기고, 공유된 현실에 대한 저의 다른 시각을 인식하고 자신의 시각을 다시 돌아봤으면 합니다. 새로운 작품이 탄생할 때마다 예술가는 조금씩 성장하는데, 새로운 작품이 지식과 경험의 영역을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관객도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지식과 경험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예술은 사회적 결속력과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 소통의 과정이 잘 작동하여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Q14.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의 맥락을 짚어보면 시각적 언어를 통한 관객과의 소통이라고 봐도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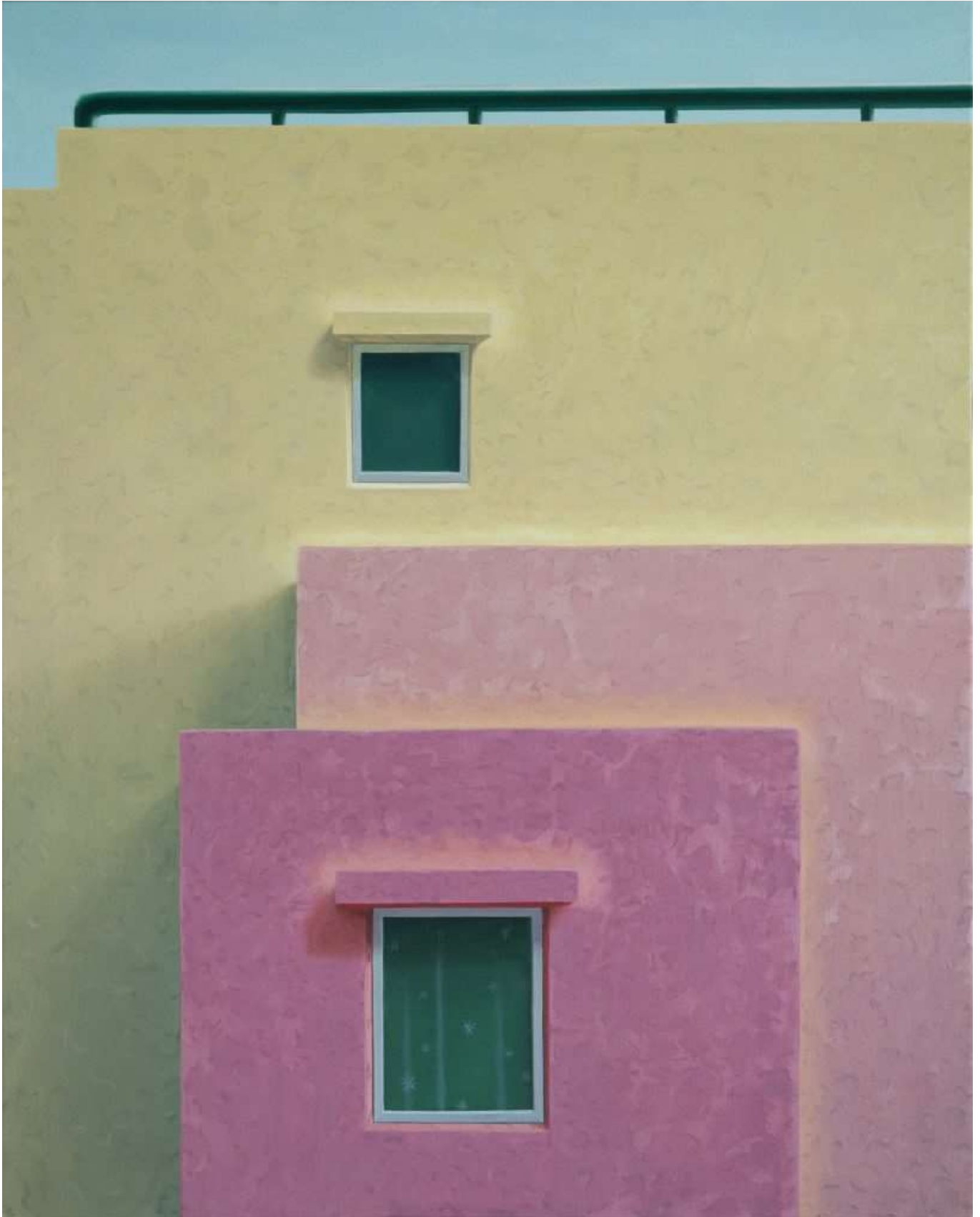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의 매개체는 언어인데,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린 그림으로 소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각적 언어로 소통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도 한국어를 못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간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인이 놓치는 것들을 중간적인 입장에서 관찰하고 발굴한다고 생각합니다.

Q15.

**앞으로 선생님은 어떠한 목표로 작업을 하며,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실 계획인가요?**

학생 시절부터 저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현실을 언급함으로써 제 작품이 저와 관객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것은 제가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과정을 즐기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며 관객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무척 흥미로운 일인데요. 창의적인 작업을 위한 기본이 되는 지적 능력, 손기술, 감각을 학생들이 개발하길 바라는 만큼 그 부분에서 집중하고 싶습니다.

편집강태성 TEAMPROS XCREW 글강태성 TEAMPROS XCREW 사진장훈통역이자혜



untitled (beige and pink walls; Segyodong, Seoul), 100 x 80 cm, 2015

잉고 바움가르텐 Ingo Baumgarten

1964년 독일 서부 하노버 출생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 미술 교육을 받았다.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일본, 대만, 미국, 한국, 중국, 호주에서 전시 활동을 해왔으며, 2008년부터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의 주택을 화폭에 담고, 홍익대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다. 《잉고

마음가르텐: just painting》, 《住宅(주택)》 등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3년 전시를 개최한 바 있다.





Epilogue

이날의 취재는 그의 교수실이자 작업실에서 이루어졌다. 언뜻 보기엔, 어느 대학에서나 볼 법한 교수실의 정사각형 구조다. 하지만 그의 그림을 보듯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에 매료된다. 창문 한편을 차지한 식물들은 멋대로 뻗어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있었고, 대형 캔버스와 형형색색의 물감이 담긴 팔레트와 칠하다 만 붓은 화가의 작업실을 연상케 했으며, 홍익대학교 연못에서 이사해 온 물고기와 두서없이 쌓인 책들, '프림'을 넣어서 먹는다는 커피와 커피메이커는 그의 취향을 짐작케 했다. 마치 한국 주택이 익숙하면서 낯선 구도로, 평범하지만 이국적인 색감으로 화폭에 담겨 있듯, 잉고 바움가르텐은 한국의 정형화된 교수실을 그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놓았다. 그래서 이날 취재를 하며 '공간'이란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같지만 같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